



‘소녀시대’ 저리 비켜 중·고등부 댄스 경연에 참가한 살레시오여고팀 ‘헤라’가 매력적인 자세로 열연하고 있다.

# 발랄한 네 끼를 보여줘!

## 청소년 축제 이모저모

### 외국인들 댄스·K-POP에 열광

○...광주·전남 청소년축제는 K-POP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주말 총장로·금남로를 찾은 중국·미국·유럽·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은 축제장의 댄스와 K-POP에 열광했다.

독일인 데니스(여·19)양은 이날 축제가 펼쳐진 7시간 동안 K-POP을 연신 따라 부르며 함께 즐겼다. 그는 “한국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광주에 온 지 이틀 됐는데 끼 많은 청소년들의 K-POP 공연을 보니 역시 이 곳에 오길 잘한 것 같다”며 “내가 응원한 댄스팀이 우승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대 ‘탈탈라스쿨’ 부스에는 오후 내내 줄이 길게 섰다. 서예 부채 만들기과 카드모기를 보기 위해서였다. 부채 만들기에 참가한 천웅(여·15·중국 양저우) 양은 “직접 부채에 붓글씨를 써서 소원을 빌었다”면서 “학교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게 됐는데 평소 중국에서도 접하기 어려웠던 서예체험을 해서 신선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카드모기에 눈을 떼지 못했던 리정(7·중국 산둥)군은 “모래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한국을 떠나기 어렵다”면서 “다음에 한국에 올

때도 춤과 노래를 멋지게 하는 형·누나들을 꼭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 희망교실 프로그램 활용

○...청소년축제는 광주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인 ‘희망교실’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됐다.

양동초등학교 김동휘 교사가 5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문화체험을 즐겼다. 김보현(여·12) 양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신나게 즐기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신이 난다. 나랑 완전 똑 닮지 않았느냐”며 캐리커처 부스에서 받은 그림을 펼쳐보였다.

○...동강대(총장 김동욱) 재활보건관리과는 축제에 참가한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건강관리 비법을 전수했다.

동강대는 ‘체지방은 얼마나 되는지’, ‘근육은 얼마나 되는지’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식이요법과 운동 방법을 알려주는 ‘인바디 검사’를 제공했다.

김미영(21) 씨는 “몸무게만 재는 줄 알았더니 단백질·무기질 등 내 몸 상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며 “체지방이 많다고 나와 운동해야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박기웅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댄스 1등 했어요 동신고 댄스팀 ‘헤르메스’가 가면 쓰고 멋진 안무를 선보여 여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학교폭력 싫어요 광주 동부경찰서(서장 김홍균) 직원들과 조대부고(교장 박영환)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받고 있다.



꿈을 향해 점프 3대3 길거리 농구대회에 출전한 고교생들이 프로 못지 않은 농구 실력으로 경기에 전념하고 있다.



학업 스트레스 날려버려! ‘제3회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의 피날레 공연으로 준비된 ‘디제잉 야간 파티’에서 청소년들이 한데 어우러져 열정의 춤사위를 펼치고 있다.